

 <div>산업통상자원부</div> <div><a href="http://www.motie.go.kr">http://www.motie.go.kr</a></div>		<div>보도자료</div>	
<div>2020년 6월 3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div> <div>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6.2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)</div>			
배포일시	2020. 6. 2(화)	담당부서	에너지혁신정책과
담당과장	양기욱 과장(044-203-5230)	담당자	김유 사무관(044-203-5125)

## 산업부 장관, 코로나19 위기 속 한-호 에너지 협력 방안 모색 - 한-호 수소협력 의향서(19.9 체결)를 기반으로 수소 협력 강화 -

□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6.2(화) 호주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\*의 키스 피트(Keith Pitt) 자원·물·북호주 장관과 영상회의를 개최하여,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시장 현황과 양자 에너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.

\* 호주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는 4명의 장관(①산업·과학·기술, ②에너지·온실가스 감축, ③자원·물·북호주, ④고용·기량·소기업)으로 구성

□ 성윤모 장관과 키스 피트 장관은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추세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신속한 대응 조치를 통해 **안정화에 성공**했다고 평가하며,

○ 코로나19로 **불확실성이 높은 글로벌 에너지시장\***에서 주요 소비국인 한국과 주요 생산국인 호주가 **긴밀히 협력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확보**에 기여하기로 약속하였다.

\* '20년 1분기 수요 감소(IEA, 전년동기대비): 석탄 △8%, 원유 △5%, 가스 △2%

\* 전년대비 연간 석유수요 증감(IEA, 만b/d) : ('18) 108 → ('19) 84 → ('20e) △930

□ 성윤모 장관은 한국의 강점인 수소 활용과 호주의 강점인 수소 생산이 양국간 **중점 협력 분야**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, **그린수소 분야를 포함하여 R&D, 실증, 투자 등 다각적 협력을 추진할 필요**가 있다고 밝혔다.

○ 특히 작년 양국이 **한-호 수소협력 의향서**를 체결한 후 현재 **공동 연구\* 발굴 및 워킹 그룹\*\* 구성**을 두고 **활발한 논의**가 진행되고 있음을 언급하며,

\* (한)KOGAS-(호)Woodside社: 그린수소의 해외 도입 타당성 검토 등

\*\* 한-호 수소경제 활성화 액션플랜 수립 및 이행을 위한 공동 워킹그룹

○ 최근 호주 정부가 **수소 투자 펀드\***를 도입해 수소 개발 및 공급에 박차를 가한만큼 양국이 **세계 수소경제 활성화**를 위한 **모범적 협력체계**를 구축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하였다.

\* Advancing Hydrogen Fund: 깨끗하고, 혁신적이며, 경쟁력있는 국제 수소 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투자(약 2,300억원 규모)

□ 또한, 성윤모 장관은 호주가 **한국 LNG 2위 도입국\***이자 **광물자원 1위 공급국\***인만큼 앞으로도 한국으로의 **안정적인 공급**에 큰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.

\* 한국 LNG 수입비중: 1위 카타르(27.8%), **2위 호주(19.1%)**, 3위 미국(12.8%)

\*\* 한국 광물자원 수입비중: **1위 호주(39.2%)**, 2위 러시아(9.6%)

□ 이러한 양국의 에너지·자원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양 장관은 코로나19가 안정되는 대로 **제30차 한-호 에너지자원 협력위원회(실장급)\***를 하반기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.

\* 1980년부터 지속되어 온 공식 협력창구로 양국이 교대로 개최('19년 호주 개최)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과 김유 사무관(☎ 044-203-512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